



01

플롯구조

“문학성을 띤 작품으로 살펴보면 플롯구조

5 절정(6-7장)

모르드개가 과거의 선행으로 높아짐,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청원, 하만이 왕의 진노로 나무에 달려 죽음

절정은 가장 긴장된 순간이고 결정적인 요소 혹은 인물이 등장하므로 이야기가 해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최초의 상황이 뒤바뀌거나 등장인물의 행동이” 변화하는 단계로 이 부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긴장이 해소되는 행동들이 나온다. 에스더 6-7장이 이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모르드개가 과거의 선행으로 높아지고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청원하고 하만이 왕의 진노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등 사건의 반전이 일어난다.

에스더 6장 : 절정 ①

발단(6:1-3) ⇒ 전개(6:4-9) ⇒ 절정(6:10-11) ⇒ 결말(6:12-14)

에스더 7장 : 절정 ②

발단(7:1-2) ⇒ 전개(7:3-6) ⇒ 절정(7:7-8) ⇒ 결말(7:9-10)

02

각 절 설명

발단(6:1-3)

절정 ① : 발단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워 놓는 등 분주한 그 밤에 왕은 잠이 안와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명령을 하고 그 역대 일지를 읽었다. 그런데 마침 읽은 부분이 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개가 왕에게 고발한 내용이 었다. 왕이 잠이 안와 역대일지를 읽는 것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동떨어지는 우연적인 상황이며 마침 읽은 부분도 우연히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부분이였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언젠가 순수한 호의를 가지고 베푼 선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선한 열매를 심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 일기를 들은 왕은 모르드개에게 무슨 존귀와 상을 베풀었는지 물어보았고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절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전개(6:4-9)

절정 ① : 전개

왕이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안 왕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불렀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그곳에 있었다. 화자는 하만이 그곳에 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하만은 성질이 급하게도 나무를 세운 그 날 밤에 왕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마침 왕이 바깥뜰에 누가 있는지 찾는 그 순간에 그 뜰에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하만이 왔다고 왕에게 고하였고 왕은 하만에게 들어오라고 지시를 한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는다. 지금까지 왕과 같이 있었던 청중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모르드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만은 지금 막 그 장소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왕이 무슨 이유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신에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자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하만의 생각은 그의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설마 모르드개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 5절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절정(6:10-11)

절정 ① : 절정

10절에서 강한 반전이 일어난다. 왕은 하만에게 모르드개에게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속히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만이 바로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이다. 청중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고 하만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만은 지금 청천병력같은 말을 들었다. 즉, 모든 일을 자신이 아닌 자신이 원수같이 여기는 대궐 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개에 행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모르드개에게 화가 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자격이 하만에게는 없었다. 그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왕의 호의를 받는 자라고 할지라도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왕명을 시행한다. 화자는 이런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 8-9절에서 하만이 한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왕은 모르드개의 직책과 민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로 왕은 자신이 유다인의 말살을 허락한 조서에 인장을 찍었다는 사실도 모르는채 유다인을 말살시키게 하였으면서 현재 유대인인 모르드개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다. 왕은 유대인에 대한 전개심이 전혀 없으면서 어쩌면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단지 하만의 제안에 의해 유다 민족을 말살하라고 명한 것이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결말(6:12-14)

절정 ① : 결말

하만에 의해 왕의 포상을 받은 모르드개의 생각과 감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모르드개는 포상을 받은 후 대궐문으로 돌아옴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만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 포상의 방법이 모르드개에게는 별 감흥이 없거나 혹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하여 화자는 하만의 기분과 행동은 매우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만은 번뇌(비탄에 젖어)를 하며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갔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였고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는 하만에게 하만의 운명을 예언을 한다. 한글 성경은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가정법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모르드개가 유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참으로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잘 해석이 된다. 아내와 지혜로운 친구들의 이런 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하지만 모르드개가 유다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만이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랜 유다인과 아말렉간의 갈등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만이 진다는 것은 모르드개를 통해 유다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아내 세레스와 하만의 지혜로운 자들로 이들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안 것 같다. 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므로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하만이 모르드개로 인해 치욕을 겪었고 또한 친구와 아내로부터 불길한 예언을 들으며 사건이 일단락 되는 것 같다가 14절에서 급하게 에스더의 잔치에 가는 하만을 통해 이야기가 급하게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4절에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과 '빨리'라는 단어를 통해 급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12절**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발단(7:1-2)

절정 ● : 발단

7:1은 5:8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에스더가 요청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은 다시 참석하였고 술 마시는 때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여기서도 5:6에서 한 말과 동일한 구문으로 에스더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전개(7:3-6)

절정 ● : 전개

이런 왕의 약속에 힘입어 에스더는 드디어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므로 사건이 진행된다. 에스더는 또 다시 왕의 자비를 구하는 매우 겸손한 태도로 왕에게 간구를 한다.



에스더의 이런 어법은 하만의 직설적인 어법과 구별이 된다(3:8). 그녀는 왕의 2중적 질문(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에 맞추어 2중적으로 대답을 한다. 그녀의 목숨과 그녀의 민족을 달라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당하게 되었다고 조서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3:13). 여기서 에스더는 자신도 이런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다민족이 왕의 손에서 하만의 손에 팔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하만이 왕에게 은 일만 달란트를 낸 것을 보면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만이 유다민족을 왕에게서 일만 달란트에 산 것이다.

그녀는 덧붙여 이런 처사가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종으로 팔리기만 했어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왕이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원수의 손에 판 것이 왕에게 손해였다고 말한다.

-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 5절**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하거늘

절정(7:7-8)

절정 ● : 절정

왕은 이 대답을 듣고 '진노'를 하고 잔치자리(포도주 연회)를 떠나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왕의 후원'은 누구도 왕의 허락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다. 왕은 분노가 일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일단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공간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왕이 그 자리를 나옴으로 하만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왕에게 변명하여 다시 상황을 뒤집을 기회를 잡지 못한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나갔기 때문에 하만은 감히 왕에게 가지 못하고 에스더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여기서 화자는 하만이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한다. 이것이 하만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왕의 생각을 정확히 꿰뚫은 인식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하만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런 매달림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손

에스터

그것은 마침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왕이 잔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을 가라앉히고 전후를 에스터와 하만에게 묻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때 하만은 하필이면 에스터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에스터의 의자 위에서 구부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후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터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터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결말(7:9-10)

절정 ● : 결말

죄인이 된 하만에 대한 처형은 전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재빠르게 이루어진다.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어전 내시 중의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재빨리 나서서 왕에게 고하기를 하만이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개를 달고자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높이와 하만의 집이라는 장소까지 그리고 그 목적까지 정확하게 알고 매우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하만에 대한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이를 고한 것이다. ‘충성된 모르드개’라는 말은 왕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기 위한 수식어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은 바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하였고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 역설 혹은 반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너무도 순식간에 그리고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본문에서도 단 두 절로 처리가 된다. 이런 모습은 1장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 될 때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때도 왕의 말을 거절하자마자 왕은 진노하여 내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왕후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왕은 바로 조서를 내려 왕후를 폐하고 조서를 내렸었다. 여기서도 전혀 지체함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 것이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